위험천만한 훈련 북침공격기도를 드러낸

남조선에서 대규모련합상륙훈련인 《쌍룡》이 발광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 상륙훈련은 《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이 끝난 이후에도 다음달초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북침을 노린 련합상륙훈련에 얼마나 환장이 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것이다.

원래 상륙은 그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화약내나는 북침전쟁연습소동들을 펼칠 때마다 상륙훈련을 꼭 포함시키고 특별히 힘을 넣고있는것은 공화국을 공격하고 점령하려는 그들의 침략적기도를 잘 말해주는것이다.

적대세력들의 이번 상륙훈련에서 주목되는것은 지난 시기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진것이다. 지난 시기 려단규모에서 벌어진 련합상륙훈련이 사단규모에서 크게 펼쳐지고있는것은 연습의 공격성, 위험성에 대한 반증이다. 지금이 연습에는 1만 3 000여명의 병력과 함께 남조선해군의 대형수송함, 미해군의 상륙직승기모함 등 30여척의 각종 함선들과 스텔스전투폭격기, 공격직승기, 상륙기동직승기 등 70여대의 군용기, 상륙돌격장갑차 50여대 등 방대한 군사장비들이 동원되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수색, 정찰임무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해병대특수부대가 참가하며 오스트랄리아, 프랑스, 필리핀군관계자들이 훈련을 참관하고있다고 한다.

지난 조선전쟁때처럼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수많은 추종국가들의 무력까지 동원시키려는 미국의 범죄적기도의 산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련합상륙훈련을 벌리는것을 보면 이미 리성을 잃었고 북침열기가 달아오를대로 달아올랐음을 알수 있다.

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상륙훈련은 《북지역점령 및 안정화작전》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내외호전세력들이 이번 《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에서 이 작전을 특별히 중시하고 힘을 넣은것도 이번 연습이 사실상 반공화국《점령》훈련이였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실전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광기어린 련합상륙훈련은 그대로 지난 조선전쟁때 미국이 감행한 인천상륙작전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에 5만여명의 대병력과 수백척의 함선, 약 1 000대의 비행기를 투입하였다.

이 엄청난 대병력이 월미도를 지켜선 인민군 한개 해안포중대와 한개 보병중대에 무참히 얻어맞고 3일간이나 상륙기도를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월미도앞바다는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화하였다.

오늘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또다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상대에 대해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어리석은자들의 광태이다.

1950년대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가진 미국과 맞섰던 공화국이 오늘은 절대적힘, 초강력을 비축한 세계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지난 2월에 진행된 조선인민군창건 75돐기념 열병식과 우주만리에 새겨지는 주체무기들의 눈부신 비행운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내외에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지금이 1950년대가 아니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침전쟁에 혈안이 된 적대세력들에게 속담을 하나 상기시킨다.

—남잡이가 제잡이된다.—

본사기자 김 정 혁

군사적허점만 드러낸 《강력한 대응태세》

요즘 남조선호전광들의 허세성객기가 내외의 더 큰 비난과 조소거리가 되고있다.

미국의 용병, 대포밥에 불과한자들이 상전도 전률하는 초대강국인 공화국을 상대로 《선제타격》, 《일전불사》, 《압도적대응》, 《결전태세》니 하는 호전적망발을 쉐치면서 군사적대결소동에 광분하고있기때문이다.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 아닐수 없다.

원래 빈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가 더 요란한 법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의 추태가 바로 그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것은 역적패당의 전쟁대결광기가 썩은 닭알로 바위를 깨보려는것과 같은 어리석고 가소로운 짓거리이기때문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반공화국전쟁책동을 벌리는 과정에 스스로 드러낸 군사적대비태세의 허점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호전광들은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대결책동에 대응하여 공화국이 전략순항미싸일발사훈련과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을 진행하였지만 이에 대해 전혀 포착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여 골탕을 먹고 내외의 면전에서 개망신을 당하였다.

그런가 하면 군합동지휘통제체계의 보안을 담보할수 없는 문제점들이 드러나 대책마련에 급급하고있고 대규모 련합상륙훈련에 필요한 상륙함정들이 부족한 사실도 드러나 론난거리로 되였다.

지난해에도 남조선호전광들은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대응》을 떠들며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하였지만 미싸일방어체계라는것이 미싸일들을 제대로 탐지도, 요격도 할수 없는 부실한 체계라는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대북무력시위》라고 하면서 발사한 미싸일들이 목표로 날아가지 못하고 제 머리에 떨어지거나 비행도중 폭발하고 오작동으로 미싸일이 발사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져 세계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였다.

공화국이 자위의 핵억제력을 급속히 강화하는데 대해 남조선군부 우두머리들까지도 우려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이런 허재비 같은것들이 초강력, 절대적힘을 비축한 세계최강의 핵보유국인 공화국과 맞서겠다고 오기를 부리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인을 웃기는 희대의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군부가 북의 미싸일발사징후는 물론 미싸일궤적조차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다, 북의 기습적인 미싸일발사훈련에 말려들어 허둥대고있다, 군의 미싸일방어체계가 무용지물이 되였다, 상륙함정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호전광들의 군사적대결소동을 비난조소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무지와 무모에 객기가 더해지면 재앙을 낳는다고 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이야말로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미련한 자멸망동이다.

김 혁

대결광신자의 허세성객기

얼마전 남조선의 윤석열역도가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머리를 들이밀고 《힘에 의한 평화》니, 《압도적대응능력과 응징태세구축》이니 하고 입방아질을 해댔다.

련이어 해군특수전전단을 찾아간 역도는 《불가능을 모르는 세계최강》이라고 줴쳐대며 가소롭게 놀아댔다.

민충이가 겨우 쑥대우에나 올라가 장한체한다더니 제 처지도,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설치는 어리석은자의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역도가 혀바닥에 올린 《힘》과 《압도적대응능력》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힘, 미국의 침략전쟁수행능력이다.

역도는 이것을 믿고 만용을 부리고있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공화국의 절대적힘, 초강력, 초강세에 역도가 하내비처럼 믿고 섬기는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있다.

지금 미국이 《확장억제력》이니, 《대응능력》이니 하고 떠들면서 전략자산들을 뻔질나게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여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소동을 벌리고 있지만 그것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 초강세에 얼혼이 나간자들의 허세성객기에 불과하다. 사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는 법이다.

이러한 상전을 믿고 윤석열역도가 대결광기를 부리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초보적인 분별력도 없는자의 해괴한 망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우기 역도가 군사적대결소동에 내몰린 남조선군부대를 찾아가 《불가능을 모르는 세계최강》이라고 추어주면서 대결의식을 고취하였는데 쓴웃음이 나갈뿐이다.

미국의 용병, 총알받이에 불과한 허재비들, 극도의 염전사상에 물젖고 전쟁공포증에 시달리는 오합지졸의 무리, 기강해이와 부패타락으로 하나의 거대한 범죄집단으로 전락된 쓰레기들을 놓고 《세계최강》이라고 입질을 해대고있으니 사고가 잘못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해괴한 나발을 거리낌없이 내뱉을수 있단 말인가.

정말 극치를 이룬 역도의 아둔함과 무모함, 무분별한 짓거리의 대표적실례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윤석열역도가 민심과 여론으로부터 《무지스러운 전쟁불망나니》, 《허세성객기만 부리는 가소로운 대결광》, 《전쟁위험만 가중시키는 윤재앙》이라고 조소와 비난을 받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강 현 철

말 말 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윤 〈정권〉이 끝내 일본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음라이스 한그릇에 피해자의 인권, 력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것이라는 〈국민〉의 한탄소리가 틀리지 않는다.》

(윤석열역도가 일본수상과 굴욕적인 회담을 하고 돌아온것과 관련하여 3월 17일 야당인물이 한 비판)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놓고 이것을 외교적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

(3월 20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인터네트에 올린 글)

▶《맹목적숭일, 종일은 과거를 망각한 망국병이고 미래를 망치는 망국병이다.》

(3월 21일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립장문)

깨끗이 결산하리라

리 창 식

피가 끓는다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민족에게
뼈저린 아픔과 고통만을 강요한 원쑤
오늘은 우리 강토를 핵참화속에 잠그려
분별없이 날뛰는 전쟁미치광이들
씨도 없이 징벌할 멸적의 피가 타끓는다

《넌례적인 훈련》, 《방어적성격》
이제는 그 허울마저 벗어버리고
무엄하게도 《평양점령》을 줴쳐대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핵전쟁연습에 피눈이 된 미제와 남조선 호전광들

덤벼들라
우리 삶과 운명의 하늘
어버이 계시는 수도 평양을
목숨처럼 소중히 안고사는 인민이다
천만인민이 성벽되여 지켜선 평양이다

야만적인 제재와 압살의 봉쇄속에서
최강의 힘을 키운 우리의 군력이다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거부하는
철천의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천백배 보복의 피를 끓이는 인민이다

맞서보자
보병총으로 원자탄과 맞서 이긴
지난 세기의 조선이 아니다
선랙권은 침략자에게만 있지 않거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체병기들이
침략자, 도발자들을 멸적의 조준경안에 넣고
명령을 기다리고있다

몸서리치게 깨닫게 하리라
쌓이고쌓인 우리의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백배해진 우리의 힘
조선의 불맛 진짜 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리라
세기를 두고 다져온 초강력
멸적의 활화로 터쳐
이 행성의 불행과 고통, 악의 근원을
송두리채 태워버리리라
철저히, 깨끗이 결산하리라

천년숙적에게 간도 쓸개도 다 섬긴다

우리 겨레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매국역적들을 을사오적에 비겨 단죄규탄하군 한다.

그런데 을사오적도 무색케 할 희세의 매국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역도의 친일사대매국행위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얼마전 윤석열역도가 일본을 행각하였다.

역도의 이번 행각은 우리 겨레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에 《면죄부》를 준 반역행각이고 섬나라것들에 대한 비굴한 아부아첨과 구걸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굴종행각이였으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는 군국주의 후예들에게 재침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준 매국배족행각이였다.

윤석열역도가 《3.1절기념사》라는데서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가운데서 처음으로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일본을 《협력동반자》로 추어올리는 역겨운 추태를 부린데 이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에서 일본의 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인 해결방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대가로 이번에 일본행각길에 오른 역도는 섬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후에는 과거사문제는 이미 해결되였다는 식으로 못을 박으면서 《반성과 사죄》라는 말자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착실한 리행》과 《독도령유권》문제까지 꺼내드는 일본것들의 오만하고 날강도적인 행위에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성노예소녀상건립을 그만두고 조선인강제징용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등록을 방해하지 말며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출을 리해하라고 강박하는 섬나라것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였다.

이어 윤석열역도는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하겠다고 제 먼저 떠벌임으로써 일본것들에게 재침의 날개를 달아주는 천하역적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이런자에게 어떻게 민족의 피가 흐른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윤석열역도야말로 을사오적도 무색케 할 만고역적, 민족의 넋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특등사대매국노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역도의 이번 행각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준 회담》, 《속빈 경제성과와 혹만 붙인 외교》, 《평도 주고 알도 주고 국물까지도 다 주고 받은것은 하나도 없는 최악의 외교참사》, 《윤석열은 력사를 팔아 미래를 살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단죄규탄하며 대중적인 반윤석열, 반일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윤석열역도와 같은 추악한 사대매국노, 희세의 인간쓰레기가 《대통령》감투를 쓰고있는것이야말로 남조선의 더없는 수치이고 비극이다.

독사를 집안에 두면 화를 면할수 없는것처럼 윤석열역도와 같은 극악한 매국노, 반역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남조선에서 불행과 고통, 치욕과 재난이 가시여질수 없다. 종처는 그 근원을 없애야 하며 독초는 뿌리채 뽑아던져야 한다.

겨레앞에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은 멀지 않았다.

김 현 일

단평

매맞은 리유

《꼭같이 생겼다.》

단지 이 한가지 리유로 어떤 사람이 제 친구한테서 매를 맞았다.

이것은 지난해 남조선의 어느한 집에서 일어난 일을 남조선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하다면 대체 누구와 꼭같이 생겼기에.

마주앉은 친구가 윤석열역도의 상통과 신통히도 같아보여 사건의 당사자가 울컥 치솟는 격분을 누를길 없었다는것이다.

윤석열역도에 대한 환멸과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친구지간에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을가.

애매한 두꺼비 떡돌에 치우는 격으로 친구에게서 억울하게 욕을 본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윤석열역도가 가증스러웠을것인가. 하필이면 왜 내 얼굴을 닮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욕보게 하는가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윤석열역도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어찌 그들의 가슴속에서만 타번진다고 하랴.

친미, 친일굴종정책으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서슴없이 팔아먹고있는 추악한 매국노, 무모한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으로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고있는 천하에 둘도 없는 대결미치광이,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희세의 역적에 대한 저주와 울분, 증오가 남조선 각계층의 가슴마다에서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하는 짓거리마다 겨레에게, 인민에게 해되는 망동만을 일삼는 역도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가슴속에 사무쳤으면 사람들이 역도의 상판을 그려놓은 표적을 겨냥하여 활을 쏘고 주먹으로 치는가 하면 원한의 《부적》불이기를 하고있겠는가.

민심을 등진자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 민심의 저주와 배격을 받고있는 윤석열역도의 앞날이 어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주 광 일

대담

보수세력내부에서도 터져나오는 비난의 목소리-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 《무지의 정치인》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반윤석열투쟁의 도수가 날로 높아가는 속에 보수세력내부에서도 역도의 미련하고 우직한 대내외통치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크게 터져나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기자가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와 대담을 나누었다.

기 자: 최근 보수세력내부에서도 윤석열역도의 무능과 무지, 전횡에 대한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연 구 사: 윤석열역도의 《대통령》당선 1년을 계기로 역도의 지지기반으로 되고있는 보수세력내부에서도 역도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크게 터져나오고있다.

우선 역도가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 《무지의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있다.

보수세력들은 윤석열역도의 《국정》운영행태를 보면 집권자로서의 최소한의 품격과 책임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 되는대로 말하고 《국정》을 잘 운영해보려는 욕망은 거의나 없이 《대통령놀이》에만 열중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하여 지난 1년간 각종 외교안보참사들과 자연재해, 사고와 재난들이 련발하고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입고있다고 비난하고있다.

또한 공개마당에서 쏟아낸 윤석열의 장광설은 《요점을 알기 힘든 란수표》, 《참모들도 리해하지 못하는 암호전문》이라고 야유조소하면서 《뼈속까지 검찰주의자》인 윤석열이 검찰의 지시, 복종문화를 집권층은 물론 사회전반에 강요하고있는것은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의 궁여지책이다, 고집과 독단으로는 《국정》을 운영할수 없다고 경고하고있다.

기 자: 윤석열역도때문에 남조선이 살벌한 《검찰공화국》으로 전락되였다는 비난도 날로 고조되고있지 않는가.

연 구 사: 그렇다. 보수의 《원로》라고 하는자들까지 기자회견과 토론회들에서 윤석열역도가 당선직후 《대통령실》이전과 같은 중대사를 한차례의 토론도 없이 말한마디로 결정하고 집행한것은 상상도 못할 재앙이며 검찰수사권확대와 경찰장악, 이전 《정부》출신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은 윤석열독재 《정권》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까밝히였다.

보수언론들도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실》것들과 《윤핵관》과 같은 정치깡패들을 전면에 내세워 여당을 《쑥대밭》, 《콩가루집단》으로 만들어놓은것으로 하여 2016년 《국회》의원선거후보추천개입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근혜의 전철을 밟고있다, 시급히 정치적중립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파멸은 시간문제로 될것이라고 하고있다.

기 자: 최근 윤석열역도의 친일사대망동에 대한 보수세력내부의 동향은 어떠한가.

연 구 사: 남조선보수언론들과 보수성향의 전문가들은 윤석열역도가 집권이후 주민들의 반일감정을 무시하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급급하다 못해 민족의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3월 1일의 《기념사》에서까지 조선봉건정부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국권》을 상실하였다고 한것은 민족적자부심을 짓밟아버리고 력사를 되돌린 폭언이라고 비난하고있다.

또한 역도가 최근에 있은 자기의 일본행각에 대해 《외교적승리》로 포장하는데 대해서도 일제의 강제징용범죄에 《면죄부》를 준것은 력사와 민족자존심을 짓밟은 망동이라고 개탄하고있다.

이처럼 윤석열역도는 민심은 물론 보수세력내부에서도 비난배격을 받고있다.

이것은 머지않아 도래할 윤석열역도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해주는것이다.